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기와에 새긴 부처님 말씀…또 하나의 수행”

‘禪’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전각 전시회를 여는 김충열 작가

김충열 작가, 31일까지 ‘와경반야(瓦經般若)’전

‘금강경’ ‘반야심경’ 등 불교 경전, 전각·탁본 전시

‘금강경’(金剛般若波羅蜜經)은 부처님 설법이 담긴 경전으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해 왔다.

단단한 기와에 ‘금강경’ 5000여자를 한 자 한 자 새기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무아지경에 빠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 한 자 한 자에 마음까지 담아 새기는 일은 또 하나의 수행이기도 하다.

부처님 탄신일이 들어있는 5월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뜻깊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단오 김충열 전각 초대전(31일까지)에서는 ‘금강경’을 비롯해 ‘반야심경’, ‘천부경’ 등 경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각 작품을 만나 수 있다. ‘와경반야(瓦經般若)’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장에는 탁본 작품과 돌에 새긴 전각을 함께 전시해 눈길을 끈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가로 7m, 세로 2m 크기의 ‘금강경’ 탁본은 그가 기와 54장에 한글 자 한글자 새긴 글씨를 찍어낸 작품이다. 불교 경전을 붓글씨 등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만 일일이 칼로 새겨 찍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 만큼의 공력이 느껴지는 작업이다.

“부처님 오신날이 있는 오월에, 절에서 전시회를 갖는 게 참 의미있습니다. 전시장을 찾는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김 작가가 애쓰며 갈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재료다. 그는 작업에 적합한 기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고, 이곳 저곳에서 가져온 옛 기와 파편들은 다양한 작품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기와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고고학적 아름다움, 집을 짓는 데 사용한 건축적 아름다움, 문양이 갖고 있는 미학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기와를 찍어낼 때 만들어지는 우연성은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져 세상에 하나 뿐인 개성을 만들어냅니다.”

‘반야심경’은 글자와 작가 이름, 낙관 등을 합쳐 290개의 흑벽돌에 새긴 조각을 직접 전시해 눈길을 끈다. 숱하게 연구하고 실험하며 선택한 황토벽돌(13X17㎝)에 칼로 새긴 290개의 글자는 하나 하나가 색다른 조형미를 선사하며 마치 290점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서체가 주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 적혀 있는 호태왕비체’는 현대적인 조형성이 느껴져 인상적이다.

“전각이 대중성은 떨어지지만 원초적 매력이 있습니다. 동굴벽화 등도 모두 ‘새김’에서 시작된 것들이니까요. 좋은 것들,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것들을 어딘가에 새기고자 하는 건 사람들의 기본 심리인 것같네요. 불경을 붓글씨로 적는 작가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와에, 벽돌에 새겨서 탁본하는 작업은 그냥 붓으로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오래된 느낌, 세월의 힘이 느껴지구요. 칼이 주는 예리하고 개성있는 ‘맛’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단오전각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 역시 출발은 서예였다. 1985년부터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정광주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글씨를 배웠다. 1997년부터 시작한 전각은 정병례 선생을 스승으로 삼았다.

“제가 이것 저것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시도를 자주 해 보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재료 면에서나, 서체 면에서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저 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김 작가가 붓으로 쓴 금강경 2점과 전각으로 새긴 금강경 1점 등 모두 3점의 금강경은 지난 4월 무각사 대적광전 삼존불 복장물(腹藏物·불상을 만들 때, 그 가슴에 넣는 물건)로 들어갔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 Bigger Landscape’

흑백의 수묵 거칠게 오려진 화선지 조각

설박 초대전, 31일까지

전통에 현대적 기법 결합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는 지난 2011년 부터 매년 청년작가들을 지원하는 ‘신진작가 공모전’을 열어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들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만들어갔다.

로터스 갤러리는 지난 2019년 지하 1층 공간에 100평 규모의 갤러리를 새롭게 열고 중견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회를 열어왔다.

한국화가 설 박 작가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년 작가 중에는 처음으로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다.

설 박 작가는 ‘A Bigger Landscape’(31일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수묵화를 자신만의 시각을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푸른 대나무, 잔디밭 등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간과 잘 어우러진 작품들은 일반 전시장에서 관람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먹의 농담을 살린, 거칠게 오린 화선지 조각을 이어 붙이며 차곡차곡 자연의 산세를 쌓아간 작품은 거대한 산의 형상이 갖고 있는 압도적 느낌을 잘 전달한다.

한국화의 전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성있는 화면을 연출하며 실험적 방법을 탐구해온 설박 작가의 작품은 흑과 백의 수묵이 갖는 매력을 잘 보여준다. 전통 수묵화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먹의 번짐과 함께 먹물이 깃든 한지를 찢어 붙여 산을 중첩시키는 콜라주 등 현대적 기법 등을 결합한 그녀의 작품은 한국화의 새롭고 창조적인 변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좌표다.

꽉 채운 화면과, 불완전한 듯하게 비워낸 화면에서 만들어진 산수화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또 자유분방함과 우연성이 눈에 띄는 ‘바람, 흔적, 쓸려간 자리’ 연작 등도 눈길을 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설박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으며 중국, 서울 등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상한 꾀임에 빠진 앨리스’ ‘무슨일이지?’

‘나의 친애하는 독자에게’전

6월11일까지 갤러리 포도나무

그림책과 재즈 어우러진 콘서트도

이경미 작가가 쓰고 그린 ‘나만의 기타’에는 ‘세상에 없는 기타’가 등장한다. 그림책에선 프라이팬 위 계란프라이, 오징어, 운동화끈이 모두 기타로 변신하는 즐거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기타 공연을 보고 그 감동을 전하고 싶었던 작가는 “직접 기타연주자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어떤 스타일로 그려야 그림책에서 소리 없이 그림만으로 음악이 느껴질지 고민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책은, 읽는 사람의 해석이 중요하지만 어떨 땐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림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갤러리 포도나무(광주시 남구 양림동 백서로 79-1)에서 열리는 ‘나의 친애하는 독자에게-향출판사 그림책 작가들의 특별한 문법들’전(6월11일까지)은 바로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림책 전시회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지난 2021년 문을 연 갤러리 포도나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올 한해, 다양한 그림책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향출판사에서 발행된 25권의 그림책과 원화를 18명의 그림책 아티스트들의 심층 인터뷰와 함께 전시하는 기획이다.

참여작가는 논에 심어진 모가 쌀이 돼 밥상에 놓이기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낸 ‘모모모모모’로 지난해 볼로냐 라가치 대상을 수상한 밤코 작가를 비롯해 ‘비를 처음 맞는 애벌레와 비를 딱 한 번 맞아 본 무당벌레’의 조슬기, ‘잠깐만 기다려’ ‘무슨 일이지?’의 차은실, ‘연필’의 김혜은 작가 등이다. 또 ‘이상한 꾀임에 빠진 앨리스’(김지영), ‘치과 가는 길’(남섬), ‘개울개울 징검다리’(채승연) 등도 만날 수 있다. 전시된 원화와 책들은 아이의 상상력과 어른의 동심을 자극한다.

전시된 그림책과 함께 놓인 인터뷰 자료는 쌍을 이뤄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정현주 큐레이터는 작가들에게 ‘그림책을 통해 무엇을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 ‘어떤 경험이나 계기로 그림책을 계획하고 만들었는지’ 등 7가지 질문을 던졌고 아티스트들은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 독자에게 대화를 건넨다.

전시기간 중 오픈되는 ‘가연지소’

‘나의 친애하는 독자에게’전에서 만나는 향출판사 그림책들

전시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 갤러리가 자리한 한옥집 ‘가연지소’를 오픈한다. 아이들과 함께 가연지소 툇마루에서 여유롭게 그림책을 볼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gallery_podonamu)DM으로 이용 시간을 예약하면된다. 또 갤러리에서 향그림책을 구입하면 인터뷰 자료도 제공하며, 작가 싸인이 담긴 ‘나의 친애하는 독자에게’ 아트프린트도 판매한다.

마지막 날인 오는 6월11일 오후 5시에는 담양에서 나고 자란 밤코 작가와 재즈뮤지션 최성호의 ‘모모모모모’ 즉흥 재즈공연(티켓 2만원·인스타 예약)도 열린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 관객과의 대화

10일 광주극장…정다운 감독·최재영 교수 대담

파주 출판도시 건립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사진〉 관객과의 대화가 오는 10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화를 만든 정다운 감독을 초대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위대한 계약’의 성사로 완성된 파주출판도시를 도시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공동체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영화를 함께 만든 남편 김종신 감독과 함께 건축 전문영사영화 제작사 ‘기린그림’을 운영중인 정다운 감독은 남편인 ‘이타민 준의 바다’도 제작했다.

대담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최재영 교수가 함께한다. ‘위대한 계약’은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예술공헌상을 수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ACC 테마강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예술과 대중문화로 중국을 살펴보는 특강 ‘ACC 테마강좌’를 개설했다.

첫 강좌로 오는 11일 오후 2시 ACC 문화정보원 아카데미실 B에서 이보연 성신여대 교수가 ‘예술을 통해 본 중국’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날 강의에선 중국 현대 예술사 중 가장 각광 받는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얽힌 일화 등을 들려준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이슈, 중국현대미술’, ‘20세기 중국미술사’ 등 다수의 중국미술 저서를 집필했다.

오는 6월 15일엔 문화연구자인 권기영 인천대 교수가 ACC 문화교육동에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본 중국’을 화두로 강연을 한다. 권 교수는 중국의 드라마, 영화, 만화 등 영상 콘텐츠를 통해 중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며 중국이 문화강국이 될 수 있을지, 중국 문화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권 교수는 ‘인천 대륙의 문화를 탐하다’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21세기 중국의 국가비전과 문화산업 발전 전략’ 논문 등을 발표했다. 강좌는 전액 무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